



12월 4주차 |

# 주간 인도네시아

##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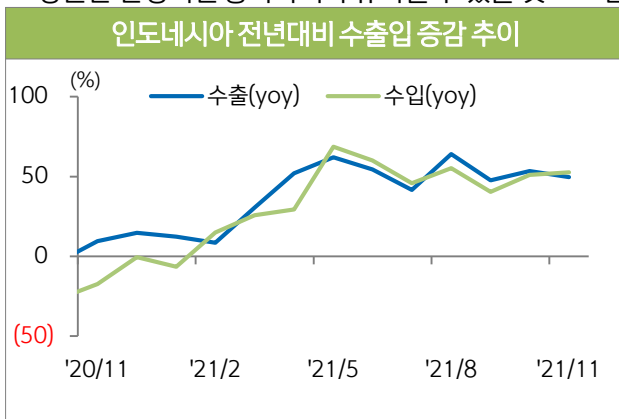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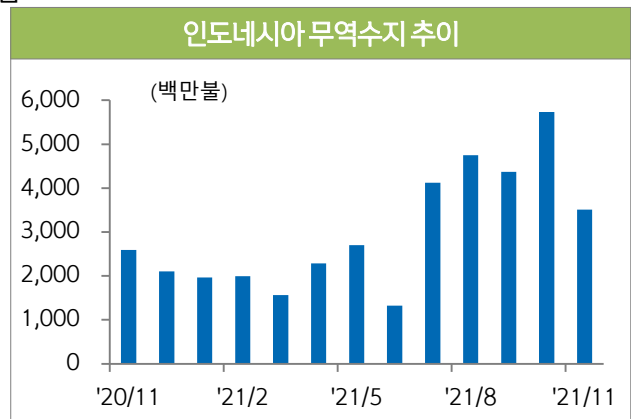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 11월에도 꾸준했던 무역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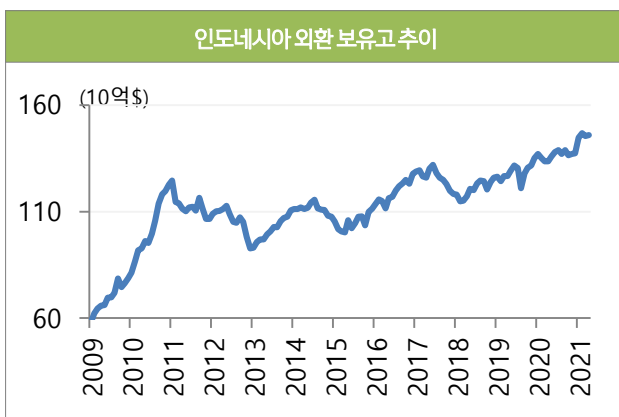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의 11월 수출은 전년대비 +49.7%, 수입은 전년대비 +52.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전년대비 50% 내외의 수출입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배제하더라도 수출입 실적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非 석유/가스 부문의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부문에서는 유가 상승 영향 이외에도 자본재와 소비재가 고르게 수입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음
- ▶ 11월 무역수지는 수출대비 수입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월의 57.3억 달러 흑자보다는 감소한 35.1억 달러를 기록. 19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연초대비 누적 3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12월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간 3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양호한 무역수지에 힘입어 11월 외환보유고는 1,459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3분기 경상수지는 GDP대비 1.49%인 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이는 지난 12년來 가장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임.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진 것이 3분기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수요처가 견고한 것을 감안할 때 지속될 것으로 판단. 2014년과 같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충격을 받을 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美 FOMC 이후 달러인덱스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달러당 14,000~14,500 루피아 범위의 흐름이 1년 내내 지속되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정책 관리 목표를 통화 안정화보다 경기 부양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었던 상황. 무역부문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진다면 美 연준의 긴축에도 당분간 안정적인 통화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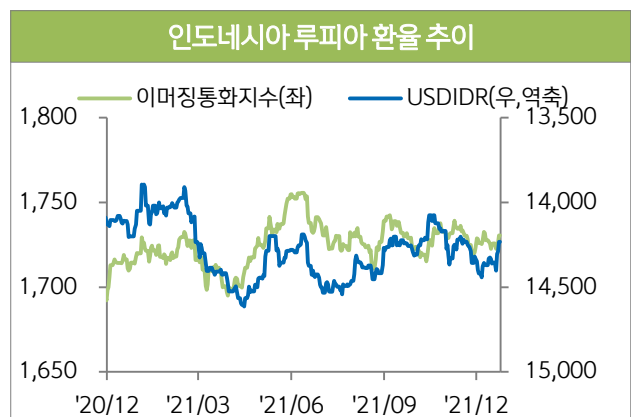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2.24	12.17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477.03	1,479.79	↓ -0.19	↑ 33.80	1,023.94 '21/01/28	1,500.81 '21/11/25
인니	자카르타종합	6,562.90	6,601.93	↓ -0.59	↑ 9.76	5,760.58 '21/05/19	6,723.39 '21/11/22
인도	SENSEX	57,124.31	57,011.74	↑ 0.20	↑ 19.63	46,285.77 '21/01/29	61,765.59 '21/10/18
중국	상해종합	3,618.05	3,632.36	↓ -0.39	↑ 4.17	3,357.74 '21/03/10	3,715.37 '21/09/13
	심천종합	2,491.96	2,523.15	↓ -1.24	↑ 6.98	2,160.91 '21/03/09	2,561.91 '21/12/13
홍콩	H	8,201.95	8,218.00	↓ -0.20	↓ -23.62	8,042.74 '21/12/20	12,228.63 '21/02/17
	항셩	23,223.76	23,192.63	↑ 0.13	↓ -14.72	22,744.86 '21/12/20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012.43	3,017.73	↓ -0.18	↑ 4.84	2,806.86 '20/12/24	3,305.21 '21/07/06



##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2.24	12.17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15	2.14	↑ 0.80	↓ -42.80	2.06 '21/09/15	2.65 '21/02/26
인도네시아	6.34	6.43	↓ -9.20	↑ 45.60	5.89 '20/12/30	6.80 '21/03/19
인도	6.46	6.41	↑ 5.30	↑ 59.90	5.82 '21/01/05	6.47 '21/12/21
중국	2.83	2.90	↓ -7.00	↓ -32.10	2.82 '21/08/06	3.28 '21/02/18
한국	2.20	2.15	↑ 5.00	↑ 48.00	1.68 '20/12/28	2.56 '21/10/29



##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12.24	12.17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915.00	22,937.00	↓ -0.10	↓ -0.79	22,645.00 '21/11/12	23,133.00 '20/12/24
달러-루피아 (IDR)	14,197.00	14,355.00	↓ -1.10	↑ 1.05	13,895.00 '21/01/04	14,615.00 '21/04/15
달러-루피 (INR)	75.02	76.09	↓ -1.40	↑ 2.66	72.33 '21/02/24	76.23 '21/12/15
달러-위안 (CNY)	6.37	6.38	↓ -0.12	↓ -2.44	6.34 '21/12/08	6.57 '21/03/30
달러-원 (KRW)	1,186.40	1,180.82	↑ 0.47	↑ 9.19	1,081.84 '21/01/04	1,198.85 '21/10/12

# 주요 뉴스





##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사용을 통해 45.4억 달러의 외화 유출 감축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가 본격적으로 진행한 B30 정책에 힘입어 팜오일 플랜테이션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한편, 디젤의 대체효과에 힘입어 외화 유출 금액을 줄이고 금융 시장의 안정 및 경상수지적자의 완화에 기여하였음

- 에너지 광물 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에 B30 정책을 통해서 45.4억 달러(646조 루피아) 상당의 외화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석유 연료 사업부문(BU BBM)이 921만 KL 수준의 B30 할당량의 97.89%를 담당하였음. 2022년에는 B30의 효율화를 통해서 B30의 사용 비중을 높이고 물류도 더 원활히 할 계획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18 BU BBM이 2022년에 1,015.1만 KL의 B30 물량을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경제조정부의 석유, 가스, 채굴 및 석유화학 차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음. 이미 도입된 B20, B30 정책에 이어서 B100을 개발함으로써 녹색 및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특히 이러한 B100 연료를 운송 및 산업 부문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정부와 산업계, 연구소의 강한 협력을 바탕으로 2022년의 바이오연료 필수 사용량 도전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B30 정책은 30%의 팜오일기반 바이오연료와 70%의 디젤을 혼합하여서 구성됨. 2021년에는 팜오일 플랜테이션에 51.86조 루피아 가량의 기금을 할당하여 970만 KL의 바이오연료용 공급을 달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2020년의 28조 루피아보다 큰 금액이 투입된 것임. 2015~2021년 사이에, 2,914만 KL의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것에 110조 루피아의 자금이 투입되었음



## 인니 경제연구소, 2022년 성장률 5.12% 전망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연구소에서는 2022년 5% 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성장으로 과열이 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연구센터에서는 2022년에 인도네시아 GDP성장률이 4.7~5.12% 범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임.
- 2021년 1,2,3분기에 각각 -0.74%, 7.1%, 3.5% 성장한 이후에 4분기에는 3.54%의 성장을 보이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3.3%의 성장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22년에는 재고 관리 부문의 변화 등이 성장률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음. 실물 부문 수요가 살아나더라도 다양한 부문의 재고 변화가 이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게 작용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았음.
- 총 자본형성에 있어서 재고 변화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올해 1~3분기 성장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였음. 기계 기구 부문의 증가는 제조업 부문의 성장 기반을 위한 투자 집행으로 연결되었고 이러한 기반이 2022년에 성장률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임.
- 또한 음식료, 운송, 정보통신, 보건 및 교육 부문도 2022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았음. 올해 2분기 이후에 전 부문에서 성장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이러한 +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2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69~2.2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으며, 루피아화환율은 달러당 14,301~14,625 루피아의 좁은 범위의 박스권 등락을 전망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 국가 주도 인프라 개발 지속 강조



### ❖ 요약 및 시사점

의회의 야당 일부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정부 주도 인프라 개발에 대한 비판을 하며 당장 국민들이 먹고 살 것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인프라는 복지의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국가 주도 인프라 개발 중요성을 강조함

-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크고 작은 규모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많은 정당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많은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도로, 항만, 공항 등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음. 당장 먹고 살 것에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왜 건설에만 힘을 쓰냐는 비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 인도네시아가 경제성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경쟁력 개선의 기반이자 필수 요소라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도로 건설은 가장 기반이 되는 복지적인 것이며, 도로가 없다면 다른 인프라의 건설과 이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유통도 어려움
- ▶ 인프라 건설로 인한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인프라의 존재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의 복리후생을 높여준다고 대통령은 강조하였음.
- ▶ 의회에서는 정부에 대해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및 지방 인프라 개발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강조하였음. 이에 대해 과거 5년간, 지방 지역에 400.1조 루피아의 기금이 배분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방에 22만 7천 km에 달하는 도로를 건설하였다고 답하였음.



## 2021년 에너지 보조금 지난해보다 15% 상향된 102조 루피아 집행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당초 예정한 것보다 많고 2020년대비 크게 증가한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이를 통해 가계 부문의 부담을 낮추어 구매력을 보전하고 다른 부문의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음

- ▶ 올해 1~11월 사이에 집행된 에너지 보조금 예산이 지난해 88.6조 루피아에 비해서 15.7% 증가한 102조 루피아에 달했다고 재무부에서는 설명하였음. 석유 및 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기 위해 국가 보조 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였음.
- ▶ 2021년 1~10월 사이에 보조금이 지급된 에너지의 규모는 1,313만 KL 규모의 디젤 및 케로신, 61억 7,694만 KL의 LPG, 3,81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52.2Twh 규모의 전력임. 여기에는 중소기업과 가정을 대상으로 한 8.1조 루피아 규모의 전기요금 감면도 포함됨. 정부가 부담하여 가계 부문의 부담을 낮추어주었음.
- ▶ 한편, 에너지 이외 부문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집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8% 증가하여서 2020년 11월 기준 61.4조 루피아보다 소폭 증가한 2021년 11월 61.9조 루피아였음. 에너지 이외 부문에 대한 보조금은 대부분 소규모 기업에 대한 사업 보증(KUR)과 142,970 가구에 대한 주택 저당할부금 납부 금액에 대한 702만 차주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음.





## 2021년 국가 회복 프로그램 예산 집행액 533.6조 루피아



### ❖ 요약 및 시사점

국가 회복 프로그램 예산으로 잡아둔 금액들 가운데 보건 분야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등이 당초 할당된 예정치보다 낮게 집행되면서 집행 금액은 533.6조 루피아였음. 연말까지 잔여 자금의 집행을 서두르면서 미 집행분은 국고 예산 환수될 예정

- 2021년말이 2주 남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경제회복 프로그램 예산 가운데 210조 루피아(147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미집행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재무장관은 발표하였음. 재무부에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 및 집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들과 연계하여서 목표로 했던 실행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였음. 미사용되고 남은 예산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환수될 예정임.
- 보건 분야에 배정되었던 214.96조 루피아(150억 달러) 가운데 69.6% 가량인 147.44조 루피아(103억 달러)가 긴급 병원 침상 마련, 의약품 패키지 공급 및 보건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지출되었음. 사회복지 목적으로 할당된 186.64조 루피아(130억 달러) 가운데는 86% 161.17조 루피아(112억 달러) 상당의 금액이 교육기관, 식량 보조금, 전력 보조금 및 실업 급여 등에 사용되었음.
- 사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전체 할당 금액인 62.83조 루피아(43.9억 달러)에 대해서 63.16조 루피아(44.2억 달러)의 집행을 보이면서 집행률 100.5%를 기록하였는데 법인세 감면, 부동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집행되어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높았음.
-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162.4조 루피아(113억 달러)를 편성하였지만, 실제 실행된 금액은 74.36조 루피아(52억 달러) 45.8%에 불과하였음.
- 최우선 프로그램인 기관 대출, 식료품 물가 안정 및 정부부처 및 기관 들에 대한 지원 금액인 117.94조 루피아(82.5억 달러) 가운데는 74.2%인 87.47조 루피아(61.2억 달러)만 집행되었음.



##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이 에너지 전환에 핵심 바탕이 될 것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환을 위해서는 투자 규모도 크고, 기술 발전이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수급 차원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과 기술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수행하는데 핵심 자원이 될 것이라고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은 말하였음.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켜야 206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 공급 차원에서는 에너지 전환 전략은 새로운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는 태양광 발전(PLTS)와 스팀발전(PLTU), 수소의 이용과 전력 저장장치(ESS) 등이 검토됨. 한편 수요 차원에서는 전기 스토브, 배터리 기반 차량, 스마트 그리드 연결, 스마트 계측기, 천연가스 네트워크 등의 기술이 검토되고 있음.
- 에너지 전환에는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데, 전력 부문에 대한 총 투자규모만 하더라도 2060년까지 총 1조 달러가 소요되어 매년 250억 달러씩의 투자가 소요된다고 에너지 광물 자원부에서는 추산하였음. 경쟁력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록 투자의 효과는 커질 것임.
- 2021~2030년 중기 에너지 공급 사업 계획(RUPTL)에서는 높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전체의 51.6%인 20,923 MW 규모로 잡고 있음.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영 전력회사인 PLN은 2030년까지 Muara Karang, Tanjung Priok, Tambak Lorok, Gresik 지역에 1.1GW 규모의 스팀 발전소의 점진적 축소도 계획하고 있음.
- PLN은 디젤 화력 발전소(PLTD)를 태양광 발전소(PLTS)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발전 생산 비용을 낮추고 친환경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또한 일반 화석 연료계 발전소에 바이오 매스를 함께 연소하는 방안도 적용할 계획임.
-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3%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도 수요공급 균형, 시스템의 준비 상황, 경제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발전 정도에 맞춰 나가야 한다면서 탄소 배출 감축도 중요하지만 산업계의 수급 상황과 맞춘 적정 가격을 유지하며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음.



## 중앙은행, 리테일 결제 시스템 인프라 BI-Fast 공식 발표



###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은 중앙 집중형 리테일 결제 시스템 BI-Fast를 발표하고 이행하였고, 초기에 21개 은행이 참여하고 내년 1월 이후 나머지 은행들과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기로 하였음.

- ▶ 중앙은행은 소매 지불결제 시스템인 BI-Fast를 공식 발표하였음. 중앙은행 총재는 BI-Fast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논스탑 지불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인도네시아 금융 경제 부문을 디지털화 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지불 결제 시스템 내에서 생태계, 은행, 디지털, 핀테크, 이커머스 기업들과 소비자가 모두 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있다고 설명하였음.
- ▶ 이러한 결제시스템을 통한 디지털화가 금융에 대한 포용성을 늘려주고, 국가 경제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중앙은행 총재는 희망하였음.
- ▶ BI-Fast는 2019년에 처음 청사진이 제시된 2025년 인도네시아 지불결제 시스템으로 시작되었으며, 국가 지급 결제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개혁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음. BI-Fast의 지불 결제는 멤버들에게는 19루피아의 이용료를 받고 그리고 멤버에서 소비자로 최대 2,500 루피아의 전송료를 부과하고 있음.
- ▶ 출범단계에서는 21개 은행들이 이미 BI-Fast 서비스 준비를 마쳤고, 2022년 1월 4주차에 다른 은행 및 비은행 기관들도 참여를 하게 됨. 중앙은행에서는 지불결제 시스템에 관련 기업들이 전부 참여하길 원하며, 모든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준비를 진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편의를 제공하길 원하고 있다고 중앙은행 총재는 말하였음.
- ▶ BI-Fast 운영 가이드라인은 2021년 11월 21일 이후 발효된 중앙은행 이사회 규정으로 정리되었음. 관련 규제는 BI-Fast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멤버십과, 실행, 청산, 의무 준수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 한편, 운영관점에서는 인도네시아 지불 결제시스템협회(ASPI)가 자가 규제 기관(SRO)로 활동하면서 중앙은행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하기로 하였음.